

2017.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3.28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철상, 신종성, 박정훈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6	-	2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2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3, 4월
보도	뉴스 상단 날씨화면에서 서울 몇 도 보다는 대전 몇 도로 표기	뉴스 상단 온도 표기, 지역으로 변환	3월
교양	우리말 바른 표기 시청자에게 전달 필요	“아침이 좋다” 교양 프로그램의 퀴즈 코너에서 우리말 바른 표기 다룸	3,4월
교양	건강프로그램에서 요즘 제기되는 질환과 치료방안 제시를	건강플러스 TV주치의(봄철 알레르기 4/2) 소개	4월
보도	대전MBC 뉴스, 젊은 시청자들 웹으로 접근하기 편하도록	네이버에서 대전MBC 뉴스 연동,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친구맺기’하면 손쉽게 접근	3월
보도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비교 뉴스 필요	뉴스데스크(3/10) 등에서 보도	3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패널 선정 다양하게 섭외	토론 프로그램 “시사토론M” 패널 전문가 다양하게 섭외함. 중국사드보복(3/26)(이민희: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통상지원팀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승찬: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철: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출연) 그 외	3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에서 경력단절 여성관련 내용 소개 필요	아침이 좋다(3/13) <여성맞춤형 교육, 내 일을 JOB아라!>에서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곳 소개	3월
보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심층적 계속적 보도	뉴스데스크(3/2, 폐기물반입 규탄)(3/14 원자력연구원장 고발)등 계속 보도	3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젊은 세대 출연	토크&조이 프로그램에 밀리언셀러 동화작가 황선미(3/18) 30대 출연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 ~ 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3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매주 월요일 초대석에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부부문제, 자녀교육에 대해 시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을 해 주고 있어 좋았다. 특히 요즘같이 소통의 부재로 대화단절로 인해 이혼률이 높아지고 자녀들과도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을텐데 초대석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하게 되어 좋았다. 앞으로도 부부문제와 자녀교육에 대한 더 나아가서 고부갈등에 대한 문제까지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좋겠다(강은혜).</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월요일 초대석에는 <자녀교육>, <부부문제>, <생활법률>, <건강음식>에 관한 전문가를 초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접근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외연을 확장해 고부갈등까지 다루도록 하겠다.</p>			
교양	<p>3월 8일 방송된 ‘아침이 좋다’에서는 뉴스엔정보에서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매월 8일로 지정한 보라데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여성과 아동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쉬운 점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 보라데이를 포함한 더 큰의미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날로 지정된 것인데 주요 시청자가 여성인 점임을 감안한다면 그 날의 ‘아침이 좋다’ 전체 컨셉을 3·8여성의 날로 정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정보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강은혜).</p>	<p>좋은 지적이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주 시청자가 주부이므로 항상 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바른 먹거리, 유의한 정보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 3·8 여성의 날에는 여성과 관련 다양하게 이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다.</p>	○		
교양	<p>허참의 토크&조이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토크 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계층의 인물 선정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의 얘기도 듣고 싶어 한다. 얼마 전 토크&조이에서는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 편이 방송되면서 평소 사찰 음식에 문외한인 많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더 해 주었다고 본다. 특히 명장 ‘선재 스님’에게 듣는 맛깔스런 사찰 음식 이야기가 오늘 토크&조이를 돈</p>	<p>‘허참의 토크&조이’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줘서 고맙다. 명사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본 프로그램은 허참, 유지은 진행자의 편안한 진행, 다양한 인물군의 적절한 편성으로 시청자들이 애정 있게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 횡수로 5년 여, 220회가 넘었다. 오랫동안 이어오는 장수 프로그램이라 제작진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p>		○	

	<p>보이게 했다. 인생 이야기까지 더 해지면서 우리 없이 다가 갈 수 있었다.</p> <p>일반적으로 토크 쇼의 단점은 , 스튜디오라는 한정된 공간에 1,2,3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화면, 그리고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앉게 되는 소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동선들이다.</p> <p>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첫 출발은 토크&조이의 터줏대감 허참과 여 MC의 자연스런 오프닝에서 편안함을 더 하면서 선재 스님과의 얘기를 풀어 나갔다.</p> <p>우선 숫자로 풀어보는 선재 스님의 프로필 소개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두 MC와 선재 스님과의 대화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p> <p>이 자연스런 대화는 총 53분여에 이르는 방송 시간 중 30여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단조로운 화면에 조금씩 지루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을 찾으면서 분위기가 반전 되었다.</p> <p>사찰 음식 요리법 소개에 수강생들의 진지한 모습들,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철학 강연 등 4 분여의 동적인 시간이 프로그램에 활기를 넣어 주었다.</p> <p>이어진 스튜디오에서의 진행자와 방청객들의 사찰 음식 맛보기와 방청객들의 인터뷰 시도 또한 눈에 띄었다. 결국 12분여 만에 두 MC와 게스트는 원래의 모습으로 자리했고 클로징 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됐다.</p> <p>위에서 얘기한 토크 쇼의 단점 요소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주는 방송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p> <p>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2MC의 역할 배분이 고르다. 그런데 긴 소파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게스트의 모습이 외로워 보인다. 때로는 진행자가 게스트 옆에 자리하는 변화를 준다면 어떨까 싶다.</p> <p>그리고 등받이가 낮은 긴 소파는 초대석이고 높은 등받이에 안락한 소파는 진행자석인데 , 이 장면도 좀 그렇다(김학선).</p>		
<p>교양</p>	<p>일반적으로 특집 다큐멘터리의 방송 시간 편성은 로컬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의 여러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p> <p>제작 물량을 기준으로 보통 2 부작이 많고 3 부작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p> <p>또한 편성 시간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지는데 , 2 부작인 경우는 시청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3부작은 만만치 않다. 프로</p>	<p>특집 다큐멘터리 ‘노래로 본 한국 현대사 인생 한 곡, 나의 노래’는 80, 90년대 격동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헌사이다.</p> <p>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중가요에 투영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p> <p>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p>	

	<p>그럼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시청자의 인내심까지 필요하다.</p> <p>그런데 대전MBC 특집 다큐멘터리 , 노래로 본 한국 현대사 <인생 한 곡, 나의 노래> 3부작은 , 3월 27일, 28일, 29일 연속 편성으로 눈길을 끈다.</p> <p>프로그램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좋다. 프로그램 홍보만 집중 된다면 시청률은 덩으로 올라갈 듯싶다(김학선).</p>	<p>지코자 제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 띠편성을 시도하여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p> <p>다시 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꾸준하여 재방송을 고려중이다.</p>			
<p>보도</p>	<p>세종시가 27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에 청년몰 조성을 추진한다고 1월31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다.</p> <p>청년몰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세종전통시장의 빈 점포 20여 개를 활용해 패션이나 먹을거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임대할 계획이라고 소식을 전했다.</p> <p>세종전통시장에 조성할 예정이던 ‘청년몰’이 기존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p> <p>3월 21일 뉴스를 보면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청년몰’ 사업에 세종전통시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지만 상인회 반대로 추진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p> <p>세종시는 지난 9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 국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25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청년점포 20개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었다</p> <p>이 사업은 세종시가 중소기업청이 전국에서 10곳을 선정한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세종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지역문화와 관광, 놀이 등이 융합된 집합 쇼핑몰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었다.</p> <p>좋은 뜻으로 추진되었던 청년몰 조성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후속취재가 필요할 듯싶다(장백기).</p>	<p>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청년몰의 무산 과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검토하겠다.</p>			
<p>보도</p>	<p>우선, 원자력폐기물 보도 관련 김윤미, 고병권 기자의 목요언론인회 보도부문 수상을 치하한다.</p> <p>3월 10일 탄핵인용결정 후 대전지역 반응을 소개하였다. 대통령퇴진 대전세종운동본부 등의 기자회견, 대전일보 호외, 지역업계 이벤트 등 다양하게 여러 장면을 실제 촬영하여 보여주었다. 하지만 탄핵반대집회의 대대적 불복종운동 전개 내용은 3월 9일자 방송화면(자료화면)과 동일한 영상을 반복 소개하였다.</p>	<p>뉴스 화면에 대한 사전 검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보도뉴스 영상을 담당하는 편성국 영상부와 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공히 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p>	<p>○</p>		

	<p>현장 영상(자료화면)을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뉴스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치 우리 지역 현장에서 탄핵반대가 보여주는 화면과 같이 발생한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자료화면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현장 영상을 임의 사용함에 따른 뉴스왜곡을 경계한다(이승선).</p>				
<p>보도</p>	<p>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3월 27일)편을 시청하였다. 농촌, 소도시 등에서 학생인구의 감소, 경제적 논리로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통폐합만이 정답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준 좋은 프로그램이다.</p> <p>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소수의 학생들에게 과도한 교육비가 소모되는 경제성을 고려하는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폐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들에게도 구심점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외부로 유출케하여 점차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학교 통폐합이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는 좋은 계기였다.</p> <p>앞으로 남은 2부에서 어떤 주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바, 기대를 하게 된다. 다만 프로그램을 좀 더 흥미롭게 이끌고 싶어 한 것인지 상황에 맞지 않은 음악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은 몰입에 방해요소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아쉽다(성정모).</p>	<p>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미래와 꿈의 밑거름이 되는 학교!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시작한 1982년 이후로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3,678개교 한 해 평균 105개교 사흘에 한 곳 꼴로 사라지고 있다.</p> <p>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작은 학교의 나아갈 길은? 등의 문제점을 보고자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p> <p>지적인 내용들은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p> <p>향후 상황에 맞지 않는 음악은 적절히 삭제해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p>			
<p>교양</p>	<p>“토크 콘서트 인생한곡, 나의 노래”(3월9일)라는 제목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희노애락을 같이 한 노래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라는 기대를 갖고 시청하였다.</p> <p>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에 힘이 되준 노래, 7080세대들의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던 노래를 듣는 시간으로 초대 손님인 구창모씨와 양희은씨의 노래와 함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이었다.</p> <p>특히 양희은씨의 몰락한 집안의 말뚝로서 돈을 벌기위해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속에 동변상련을 가지며 그로인해 우리가 듣는 주옥같은 노래가 나왔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p> <p>초대 손님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방청객</p>	<p>‘토크콘서트 인생 한 곡, 나의 노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기획된 콘서트다. 동 시대의 대표적인 가수인 구창모, 양희은을 초대하여 노래와 시대에 얽힌 사연들을 나누는 구성이었다.</p> <p>초대된 100여 명의 방청객들은 출연 가수들의 희노애락때 들었던 노래에 몰입되어 공감과 회한에 젖었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p> <p>각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형식의 토크 콘서트가 왜 필요한지 느끼는 현장이었다.</p>	<p>○</p>		

	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노래에 얽힌 방청객의 사연과 함께 노래를 듣는 코너가 있었으면 좀 더 감동적이고 좀 더 진솔한 토크콘서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성정모).				
보도	대덕연구단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도 과학 전문 기자가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이 확보된 특화된 전문기자의 뉴스는 아무래도 그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이승선)	보도국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한국언론재단의 과학저널리즘 연수 등 과학 관련 전문기자 육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보도국 기자 4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다. 지금도 과학저널리즘 박사 과정에 있는 기자도 있다. 앞으로 전문적인 과학기자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보도국의 노벨상 관련 특집 프로그램 이외에 시청자들에게 과학기술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나 기획뉴스물이 필요하다. 4차산업, 인공지능 등 우리가 흔히 듣는 생활용어도 과학과 관련된 것이 많다. 연구단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보도물이나 뉴스를 통해 과학 관련 제작물을 많이 방송해주길 바란다(정민근).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획뉴스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과학 관련 뉴스 제작 비중을 더욱 높ی겠다.	○		
기타	업무상 운전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주 듣는다. 공주시, 부여, 홍성 지역 등 시내에서도 난청지역이 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 속도 아닌데 난청지역이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하다(이상진)	대전MBC는 식장산에서 라디오를 송출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부여 일부 지역은 계룡산을 포함한 차령산맥에 막혀 지형적으로 난청지역에 해당된다. 홍성은 원효봉 중계소에서 별도의 주파수로 송출하고 있어 주파수를 변경하면 수신할 수 있다.	○		
교양	대전MBC는 꽤 오랜 기간 금강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충청권 주민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대전MBC의 행보는 매우 다행스럽다. 금강보호캠페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 부족국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강우량 절대적 부족, 수질오염으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물 공급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이상진).	‘금강보호 캠페인’은 대전MBC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을 보호하고자 오랫동안 추구하고 있다. 캠페인 내용 중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멘트는 지적하신대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미국의 한 사설연구소가 발표한 것을 언론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로 시정하겠다.	○		
보도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편을 보면 재미있게 시청하였다. 작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2부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 통폐합 효과 등	○		

	<p>은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라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사회성, 협동성 등을 육성하려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작은 학교가 능사는 아니다. 학생 입장에서 살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p> <p>마을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직업이 그 마을에 있으면 상생발전할 것이다. 이런 점이 프로그램에 같이 녹아들어가면 좋겠다(이상진).</p>	<p>을 보강했고 지역 내 학교를 통해 마을이 활기를 찾는 사례 등을 추가했다.</p>			
<p>기타</p>	<p>2016년 12월,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이 재허가 승인이 있었다. 강조되었던 부분이 편성규약 관련된 내용이다.</p> <p>편성규약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게시할 필요성이 있다.</p> <p>편성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왜 개최가 안 되었는지 등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대전MBC도 편성규약 관련 일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승선).</p>	<p>대전MBC 편성규약과 관련되어 홈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구성과 주제가 좋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은 그럴지 못해 안타깝다.</p> <p>퇴직한 사람들 중에는 현업에서 쌓은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이다.</p> <p>이런 사람들이 지역 소단위 학교에 봉사할 일들이 있다면 인적자원 활용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p> <p>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한다(정민근).</p>	<p>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이후 지역의 인력 자원을 지역의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기획보도 등을 구상하고 있다.</p>		○	

